



즉시 배포용: 2018년 12월 3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농장 건물에 적용하는 부동산세 면제 기간 연장 발표

중요 농사 원예 건물 및 시설에 향후 10년간 부동산세를 면제하도록 연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농장 건물에 적용하는 주의 부동산세법(Real Property Tax Law) 면제 연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뉴욕 농부들과 재배자들에게 세금 감면을 계속 제공할 예정입니다. 부동산세법(Real Property Tax Law)은 농업 생산자들이 임시 온실, 낙농 창고, 승마 운영을 위한 훈련장 등 농업 또는 원예 상품 생산에 필수적인 건물에 대해 지불하는 부동산세를 면제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농업은 우리 경제에 주요 부문이므로 우리가 지역 농부와 재배자들을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세금 면제로 뉴욕에서 열심히 일하는 농업 생산자들이 자신의 농장에 투자하고 사업체를 키우도록 도울 것이며 그 결과로 앞으로 오랫동안 경쟁력과 생산성이 증가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업은 뉴욕 경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주 전역의 농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없애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법으로 뉴욕 농장이 가진 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고 세계 경제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부동산세법(Real Property Tax Law) 면제는 10년 연장되었으며 2029년 1월 1일까지 새롭게 건설되는 건물, 재건설되는 농업 건물에 적용됩니다. 농업 시설용 면제가 2008년에 마지막으로 갱신된 이래 뉴욕 농부들은 1억 1,128만 달러를 아낀 것으로 추산됩니다. 해당 면제는 뉴욕의 농업 성장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농부 및 재배자는 운영에 투자하고 새 장비를 구입하고 시설을 현대화할 돈을 절약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농장의 경쟁력과 이익이 증가합니다.

농업 건물은 수십 년 동안 주 세금에서 면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제를 인정하는 해당 법은 2019년 새해 첫날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Bill Magee 하원의원과 Patty Ritchie 상원의원이 발의한 새 법은 세금 면제 기간을 연장하고 앞으로 십 년 동안 효력이 있도록 뉴욕주 부동산세법(Real Property Tax Law)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뉴욕주 농무부(New York State Agriculture)의 **Richard A. Ball**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법안에 서명하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리고 이 법을 통과시킨 주의회(State Legislature)에 감사드립니다. 이로써 역사적으로 운영을 개선하고 사업을 확장하며 기타 비용을 상쇄하는 데 해당 면제에 의존해온 우리 농부와 재배자에게 중요한 세금 감면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조세재무부(Taxation and Finance)의 **Nonie Manion**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동산세 면제 기간 연장 덕분에 뉴욕주 농부들은 이제 이로운 세금 면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귀중한 혜택을 연장해주신 **Cuomo** 주지사님과 주의회(State Legislature)에 갈채를 보냅니다.”

뉴욕주 상원 농업 위원회(Senate Agriculture Committee)의 **Patty Ritchie**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 농부들은 뉴욕 주민들이 즐기는 세계 최상급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매일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인프라 비용 같은 요소들 때문에 수익을 조금 얻거나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필수 법을 발의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법은 수익 구조를 강화하는 데 중요 역할을 하는 시설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여 앞으로 우리 주의 농업을 강화시키도록 도울 것입니다.”

뉴욕주 하원 농업위원회(Assembly Agriculture Committee)의 **Bill Magee**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재산세 면제법은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 면제에 의존하는 우리 농부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법은 농부들이 농장 운영을 유지하고 주의 녹지를 보존하며 뉴욕 주민을 위한 식품을 재배함으로써 사업을 유지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뉴욕주 농장사무국(New York Farm Bureau)의 **David Fisher**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새 농장 건물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이 법은 새 농장 투자를 장려하는 데 중요하며 이로써 가족 농장 사업이 더욱 실속 있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세금 혜택은 오늘날의 힘든 농업 경제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해당 법은 농업 운영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건설 가격 또는 시설 개선에 기반한 세금 인상을 금지합니다. 여기에는 상품 경작, 재배, 보관, 가축 먹이기, 사육, 관리, 농장 직원을 위한 주택이 포함됩니다. 직계 가족 구성원용 주택은 해당 가족 구성원이 농장주이거나 상업적 농장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경우 면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면제 관련 규칙의 전체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